

보도자료



대 법 원
Supreme Court of Korea

담당부서

사법정책실

담당자

사법정책심의관 임선지
(☎3480-1375)

공보관실 ☎ 3480-1451

최초의 시각장애인 법관 임명,

소수자 권리 보장과 사회통합의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임

- 양승태 대법원장은 법관인사위원회의 심의와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거쳐 2012. 2. 27.자로 시각장애인인 최영 지원자(32세, 사법연수원 41기)를 판사로 임명함으로써, 대한민국 사법사상 최초의 시각장애인 법관이 탄생하였음
- 최영 판사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재학 중 망막색소변성증으로 시력을 잃은 1급 시각장애인으로, 법률서적을 음성 파일로 변환시켜 들으면서 공부하는 방법으로 2008년 제50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였고, 지난 달 사법연수원 과정을 우수한 성적으로 수료하였음
- 대법원은 최영 판사의 법관 지원에 대비하여 시각장애인 법관이 근무하고 있는 외국의 사례를 조사하여 참조하는 등 시각장애인 법관이 재판업무 수행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준비하여 왔음
- 장애인은 우리 사회 내 대표적 소수자 집단으로서, 시각장애인 등 소수자를 포함시켜 사법부를 구성하는 것은 단지 개인으로서의 장애인에 대한 평등권이나 공무담임권의 보장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 내의 다양한 갈등과 분쟁을 해결함으로써 진정한 사회통합을 이루는 과정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님

1. 공부 및 수습 방법

- 최영 판사는 망막색소변성증으로 대학교 재학 중에 실명하게 되어 맹인용 점자 등에 익숙하지 않음
 - 사법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법률서적을 음성으로 변환하여 듣는 방법으로 공부하여 2008년 제50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였고, 연수원에서도 모든 교재를 컴퓨터 파일로 전환하여 스크린 리더라는 프로그램을 통하여 귀로 듣는 방법으로 학업을 수행하여 2012. 1. 19. 사법연수원을 매우 우수한 성적으로 수료하였음
- 최영 판사의 입소 전 사법연수원은 시각장애인 법조인을 먼저 배출한 일본의 경험을 현지 출장을 통하여 조사하고 점자블럭 설치를 포함한 시설 개선을 하는 등 철저한 준비를 하였음
 - 사법연수원 교수들은 시각장애인인 최영 연수생을 다른 연수원생들과 같은 기준으로 평가하되, 실질적으로 평등한 조건 하에서 수습과 시험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교재와 시험문제를 음성으로 변환하고 시험시간을 조금 더 부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원하였음
 - 시험기간 중 답안지나 메모 등도 타인의 조력 없이 본인이 컴퓨터 자판을 암기하여 문서를 작성하였음

2. 최영 판사의 임용에 대비한 연구와 준비

- 대법원은 최영 연수생의 법관 지원에 대비하여, 독일, 영국, 미국 등 시각장애인 법관들이 근무하고 있는 외국의 사례를 조사하여, 시각장애인 법관의 직무수행 방법과 업무 보조인의 역할 등에 관하여 다각도로 연구해왔음
 - 장애인들의 권리가 잘 보장된 선진국의 경우 시각장애인 법관들이 다수 근무하고 있고, 특히 복잡하고 중요한 사건들을 담당하는 법원에서도 왕

성하게 활동하고 있음

- 독일의 경우 2012. 1. 현재 60명 정도가 재판장을 포함한 법관으로 근무: 특히 Hans-Eugen Schulze라는 시각장애인 법관은 연방일반법원(BGH) 판사로 근무하기도 하였음
 - 미국의 경우 10명 안팎의 시각장애인 법관이 근무한 바 있는데, 연방항소 법원, 애리조나주 대법원 등 복잡하거나 중요한 사건이 많고 업무량이 많은 법원에도 시각장애인 법관이 근무
 - 영국에도 시각장애인 법관들이 근무한 바 있는데, 특히 그 중 Lafferty 판사는 런던 Snaresbrook Crown Court에서 중요 형사사건을 담당하고 있음
- 대법원은 최초의 시각장애인 법관인 최영 판사가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법원 배치, 사무분담, 다양한 증거조사 방법과 보조인력 및 기술적 지원 등에 대하여 조사·연구해 왔음
- 그 중 시각장애인 법관의 시각 능력을 보완하기 위한 보조인은 장애인이 장애를 갖지 않은 사람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는 필요최소한의 지원에 해당함
 - 대법원은 2012. 2. 9. 보조인 모집 공고를 내어 다음 달 채용할 예정이며, 보조인은 타이핑을 통한 기록의 파일화 작업, 기록 낭독과 영상자료 묘사 등 시각장애인의 재판업무 지원을 위한 제반 업무를 수행하게 됨

3. 의의

- 사법부가 다른 헌법기관과 달리 다수결의 원리에 따른 선거에 의하여 구성되지 않는 것은 사법부로 하여금 소수자 보호라는 책무를 담당하도록 한 헌법적 결단임

- 소수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가장 효과적이고도 실질적인 방법은 소수자를 사회적으로 중요한 각종 논의 및 결정 과정에 포함시키는 것임
- 장애인은 우리 사회 내 대표적 소수자 집단으로서, 장애인 등 소수자를 포함시켜 사법부를 구성하는 것은 단지 개인으로서의 장애인에 대한 평등권이 나 공무담임권의 보장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 내의 다양한 갈등과 분쟁을 해결함으로써 진정한 사회통합을 이루는 과정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님.